

철학사상연구소 콜로키움 요지

제 39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정치와 철학

Ulrich Steinvorth (독일 Hamburg 대학)

울리히 교수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로, 정치 철학이 진리 주장을 고수하고 진리를 합의로 대체하지 않는 한에서, 정치 철학은 비민주적이다. 정치 철학이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 주장 때문에 다수의 판단이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른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치 철학은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 자신이 육을 먹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가장 좋은 처지에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치적 관계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일은 좀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록크에게서 보았듯이, 철학자들은 그런 일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플라톤은 아테네적인 (정치) 관계에 대한 올바른 판단자가 아니었다. 헤겔은 국가의 필요성과 전쟁의 “윤리적 계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하이데거는 영도자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 있어 완전히 잘못되었다. 추상적 사고의 능력들은 좀처럼 구체적인 판단에서의 능력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예술이지만, 그 성공은 타협과 화해를 찾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번영은 언제나 이 정치적인 목적들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적 결정이 옳은가하는 것을 결

정해 주는 것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아니라 정치가 가지는 목적의 달성, 특히 인류 번영의 달성인 것이다. 바로 이 단순한 사실이야말로, 정치 철학자들의 민주주의 혐오증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지만 그것을 민주주의의 유익한 요소 중

하나로 만들어 주는 사실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자신의 합의가 정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오류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울리히 교수는 주장한다.

제 40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생태계 위기에서 본 윤리적 귀결
Vitorio Hoesle (독일 Essen 대학)

생태계 위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칸트의 윤리학을 시정할 것을 요청 한다. 그 첫번째 측면은 형이상학적 측면이고 두번째 측면은 인륜법칙들(Sittengesetze)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번째 측면은 동기의 문제(Motivationsproblem)와 관련된 것이다.

첫번째 측면부터 살펴보자면 필자는, 칸트에 동조하면서, 규범적인 문장(normative Sätze)들이 기술적인 문장(deskriptive Sätze)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사실의 세계의 존재와 규범의 세계의 존재

가 분리되는 이원론적인 존재론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론의 경우에는 경험적인 세계가 - 자연도 물론 여기에 속함 - 자신의 고유한 존엄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생태계 위기의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존재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에서 옛보이는 식의 존재에 대한 일원론과, 칸트에게서 그 특성을 드러내는 식의 사실과 규범의 이원론 사이에서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길은 인륜

법칙이 경험적인 세계를 원칙화시킨다는 假定이다. 인륜 법칙은 그 자신의 고유한 이상적 세계(ideale Welt)에 속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세계(natürliche Welt)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과격하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까닭은 바로 이것이 자연적인 세계의 근거(Grund)이기 때문이다. 정신을 산출시키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 자연의 발전속에서 이상적인 세계는 현전한다. 적어도 자연이 그 것의 구조들(Strukturen)에 참여하는 한 자연은 스스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etwas Werthaftes)이다.

자연을 이처럼 형이상학적으로 평가하는 데서부터 두번째 측면, 즉 인륜 법칙의 내용과 관계되는 점, 다시 말해서 칸트의 윤리학을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도출된다. 자연 역시 인륜적인 의무(sittliche Pflichten)의 대상이다. 이것은 자연이 이상적인 구조들(ideale Strukturen)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귀결된다. 자연은 가치들을 실현시키고, 이러한 가치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어

쩔 수 없는 경우는 하나의 보다 높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제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가치의 문제가 제기되는 데, 필자는 먼저 자기 스스로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무한히 우월한 것으로 보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연이 어떻게 인륜적인 의무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라는 물음에 대해 과연 데카르트적 주체가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가라고 되묻는다. 우리는 어린아이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늙은이들을 인륜적 의무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그는 주관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다. 그 지배의 시간 양태는 절대적인 현재이며, 과거와 미래는 과격하게 부정되고 있으나 인간은 포괄적인 역사적 발전의 한 부분으로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이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 왜 미래 세대를 위하여 이 지구촌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의무일까? 그것

은 만약 인간이 인륜 법칙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최상의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이 없는 세계는 인간이 있는 세계보다 훨씬 열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없는 세계로 이끌어 가는 행위들이나 의무 불이행들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비도덕적인 것이다.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미래 세대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세대들속에서도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무조건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마도 인류이자 인간의 이념일 것이다.

德(Tugenden)들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겠지만, 德들은 상이한 제약 조건들 아래에서 하나의 새로운 강조점을 지니게 마련이다. 환경 세계(Umwelt)의 새로운 목적은 “어떤 땃가에도 아랑곳않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사회(umweltverträgliche Gesellschaft)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태학의 시대에 윤리학의 본래적인 문제는 새로운 규범을 정초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보존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받았다. 또 자연에 부여되는 가치의 성격에 대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다. 훨씬 어려운 것은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의 특정한 측면들이 과상하게도 진부하게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행위의 동기의 차원에 도사리고 있다.

칸트는 그의 윤리 이론에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개개 인간의 건전한 오성은 특정한 상황속에서 어떤 것이 과연 도덕적인 행위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 현대 기술은 우리 행위의 결과들을 시공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 세계(Wirkwelt)의 확장에 병행하여 지시 세계(Merkwelt)는 함께 확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기술은 오늘날 원거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은 전통적인 박애심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태도를 배우지 못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원자폭탄이 장착된 유도탄의 발사 스위치를 누르는 장군은 그가

죽이는 인간들과 아무런 구체적인 접촉을 갖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개인이 져야할 의무, 즉 그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위와 집단의 행위가 미치는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한 개인이 소유한 권력이 크면 클수록 이 의무도 더 절실하게 요청된다. 보다 큰 권력은 보다 큰 책임을 동반한다.

무엇이 의무인가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모든 의무들 가운데 제일 첫번째 의무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식을 행위로 이행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그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엄청난 災害들이 내 앞에 오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생태계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분위기다. 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갈 것인지 자동차로 갈 것 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개인은, 비록 그가 자동차를 이용하면 온실 효과가 심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안타기를 주저한다. 그 행위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자신의 노력은 대단히 하찮고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위기를 개인의 행동방식 전환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미약하나마 내면으로부터 부여되는 가치(*intrinsischen Wert*)를 몸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타기를 가치있는 일로 보이게 하는 가치 체계를 공격하고, 또 한 의식적으로 담대하고 빠르게 자동차를 타고 마는 사람들의 심리구조를 풍자하여 도피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시켜야 하며, 그 비판이 종오심에 의해 유지되어서는 않된다. 그는 새로운 긍정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중재해야 한다. 윤리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인간은 세계와 인간들을, 그들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 깊은데서부터 사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환경 파괴의 도덕적인 악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 인과학적인 분석 (kausalwissenschaftliche Analyse)만으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희망을 창출해낼 수 없다. 존재 체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근본적 믿음이야말로 인간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 41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화
C.A. van Peursen (네덜란드 자유대학)

인간 존재의 기원을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고생물학자들은 유인원이 갑자기 변화한 주위 환경에 대하여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자문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존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변화에 직면하고, 그 변화에 적응 하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그 배움의 과정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배움의 과정으로서의 인간 문화

를 다음과 같은 모델들로 도식화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각 문화의 단계에서 사회의 구성과 삶을 유지해 가는 방법, 그리고 교육과 인간 생활의 환경을 특징짓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문화가 위의 세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거나 첫 번 째의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미개하거나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소비의 단

	채집의 단계 (vegetating)	생산의 단계 (producing)	소비의 단계 (consuming)
사회	종족	국가와 개인	Worldwide Network
삶의 유지	사냥과 채집	농업생산과 산업	Servic Industry
교육	구전되는 전통	교육 : 학문 중심	평생교육, 오락, 건강
환경 (basis)	자연	Man-made World	Communication World

계로 접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문화단계들에서 유지되던 각 사회의 차별성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소비의 단계에서 급속도로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은 다양한 문화들의 상호 접촉을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른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채집의 단계에서 추구되어지던 well-fed, 생산의 단계에서 추구되던 welfare와는 구별되는 Well-being이 소비의 단계에서 추구되어지고, 이는 미디어와 과학기술, 각종 산업의 발달로 야기된 empty brain(미디어의 영향으로 자기 판단을 상실함), empty nature(오염된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인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의사결정(decisionmaking)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인간, 사회, 그리고 국가는 역사의 십자로에서 결정을 취해야 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일상생활에서 조차 결정은 더욱 중요하고, 또한 윤리적 차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타당하고 정당한 해석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해석은 주어진 사실과 정태적 구조를 뛰어 넘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초월의 차원이 중요해 진다. 일본으로부터 네덜란드로 수입된 벌들은 즉각 네덜란드 벌들에 의해 이해되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일본벌들은 네덜란드 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던 바가 있다. 벌들은 그들 나름대로 동일한 “언어(language)”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해석자를 필요로 한다. 이제 한 인간에게 여러 문화가 동시에 의미를 갖게 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인간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해석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통한 언어와 문화는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시대 문화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또다시 일어남직한 초월의 차원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메시지 이상인 문화교차만이 변화하는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42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중국대륙의 중국철학 연구 근황
 樓宇烈 (중국 북경대학)

80년대, 중국대륙의 중국철학 연구의 중점은 우선, 문화대혁명 중 이론바 “儒法鬪爭史”가 야기한 중국철학 연구 조성에 가져다준 혼란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학술계는 법가에 상대하는 것으로도 또 그 자체를 긍정하는 것으로도 유가사상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져 특히 孔孟, 그리고 宋明理學研究의 성과가 가장 많았다. 두번째의 중점은, 50년대 이후 이론바 哲學史는 다름아닌, “유물주의와 유심주의 사이의 투쟁의 역사”라는 도식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철학사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각종 토론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구체적인 연구 작품 속에서 반성하여 우선 당시는 이와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연후, 그 반성을 토대로 사상을 분석하여 객관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철학사상에 대

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그 이론사상 상의 득실과 가치를 재평가하였다. 그 다음, 세번째의 중점은 중국철학사의 풍부한 내용을 드러내어 중국 전통철학 사상 이론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특정 사상가, 특정 주제, 그리고 철학사의 시대구분 방면의 연구 저작이 출판되어 과거 연구의 적지 않은 공백을 메웠다. 그 중 일부는 사료의 발굴과 이론분석이 前 시대인의 연구 수준을 뛰어넘어, 사람들이 중국철학 사상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인식을하도록 하였다.

90년대 이래, 중국대륙의 중국철학연구에는 일련의 새로운 동향이 출현하였다. 우선 철학사상의 연구에 대한 문화적 추세가 드러났다. 이는 곧 철학과 일반 사회문화 현상 사이의 관계 문제에서 철학이론의 人倫, 혹은 일상적인 생활에 대

한 의의 등의 문제까지 연구 토론하는 데에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문화의 건설에 전통철학이 어떤 적극적 의의가 있는가하는 문제가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로 말미암아, 근 100년 간의 전통 윤리 도덕 방면의 비판에 대한 반성을 거쳐 유가의 도덕학설과 윤리 가치 관념을 새로이 평가하고, 그 중 합리적 방면에 대해 긍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하는데에 나아가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동향은 사람들이 중국철학과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문정신 전통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쏟아 각 방면으로부터 발굴과 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이러한 인문정신이 바로 현대의 과학기술, 경제가 발달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認識하고, 따라서 이 또한 21세기 세계문화 건설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른바 중국철학·문화에서 道家가 그 중심이라는 학설로서 90년대에 이르러 사회에 상당히 커다란 목소리를 내는데까지 발전한 것이 그것인데, 심지어 “新道家”학파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도

가사상의 중국철학·문화에의 작용, 지위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깊이 연구 토론될 만한 하나의 학설이고, 새로이 평가될 만한 문제이다. 근래에 와서 학술계에서는 도가의 自然無爲思想에 포함되어 있는 적극적인 의의에 대해 많은 규명이 있었고,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개발, 생태환경 보호 등에서 또한 매우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道家文化研究》라는 잡지는 이 방면의 중심이 되어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도가와 도교사상·문화에 대한 연구의 커다란 추동력이 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馬王堆에서 출토된 帛書<周易>을 둘러싼, 특히 <經>後<易傳>의 빠진 부분이 도가, 유가兩사상의 주된 문제가 되어 학술계에서 인기있는 논쟁을 끌어내었다.

또 종교철학·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널리 높아졌다. 종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80년대 말에 시작된 것으로 88년 말, 많은 사람들이 일찌기 89년은 종교사상·문화에 관련된 방면 서적의 출판 붐이 일 것으로 예견하였고, 그 예견은 들어 맞았다. 89년 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종교사상·문화 방면의 저

작은 가히 천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주요한 것이 기독교, 불교, 그리고 도교에 관련된 것이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량의 서양 연구 명저와 동시에 일단의 국내학자의 연구저작이 출판되었다. 불교방면의 연구성과는 가장 많아서 그 미치는 영역이 매우 넓어졌다. 많은 佛敎通史 저서를 비롯해서 각종 主題史, 時代區分史, 나아가 불교철학, 불교예술, 불교와 중국문화의 관계 등에 대한 많은 저서가 출판되었다. 이에 비교하여, 도교의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전의 연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성과가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어서, 부분적인 道敎通史 몇 권이 출판되었고, 적지 않은 主題史와 時代區分史 연구저작이 출판되었다. 그 외에 이러한 종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또近年의 종교 전공 연구생의 숫자 증가에 반영되어, 사회적으로 종교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구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금년 9월, 北京大에서 이미 종교학과의 성립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일시적으로 철학과와의 연계 하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지난 백년 간의 철학연구 방법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는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민족의 전통 문화와 철학사상에 대해 나날이 더해가는 자각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근래 백년 동안 서양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서양철학의 도식을 사용하여 중국철학을 연구하고 해석했다. 비록 일찌기 많은 서양 철학의 적극적인 작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削足適履, 牽強附會의 부분이 있어 중국철학의 근본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중국철학은 본래 體悟와 實踐을 그 근본으로 삼는데 비해 지금은 오히려 이를 서양철학의 純理性的인 분석의 도식 속에서 받아들인다. 이 점은 이미 문제의 심각함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 문제에서 언급된 면은 매우 넓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동일하지 않아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방면에 대한 토론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이후 몇 년 동안 유행할 수 있을 만한 주제로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전반적인 중국철학 연구의 면모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